



건축에 대한 열정, 작품에 관한 기억,  
우정이 빛나는 공간, "건축공간 이음"  
\_ 박광성 건축사 바우 건축사사무소



대만의 참사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건축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시론 \_ 02

32년간 사무국에서 바라본 건축사(建築士) \_ 김재성 사무국장

### 작품소개 \_ 03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설계경기 \_ 04 ~ 05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제안공모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상 공모

### 학술지면 \_ 06

비점오염원 관리방향 설정 3부 \_ 이정기 LH처장

### 사람 & issue \_ 07

건축에 대한 열정, 작품에 관한 기억, 우정이 빛나는 공간,  
"건축공간 이음"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와의 만남

### NEWS \_ 08 ~ 11

2015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단축되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바뀌어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감사선거에 호남권 건축사 출마  
광주건축사회, 2016년 정기총회 표창대 수상자 결정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 검사 수수료 이용료 변경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감사선거 후보로 박진호 건축사 출마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2월 · 3월 주요 일정 안내



2016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 시험 공고되어 \_ 09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 열어 \_ 10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2015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 가져 \_ 10  
전북 군산지역건축사회, 군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 받아 \_ 10

# 32년간 사무국에서 바라본 건축사(建築士)



김재성 사무국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이 글을 빌어 그동안 우리 광주건축사회와 사무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축사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1984년 5월의 시작과 32년이라는 무게

1984년 5월,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지부에 입사하여 시작된 사무국 생활이 어느덧 32년. 빛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 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무국장으로서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 글로써 내려놓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임직원 및 회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건축 관련 인사들과의 관계를 맺고, 건축과 건축사를 위해 수많은 사무업무들을 지원하고 수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직책에 걸맞은 확고한 의식과 의지가 생기고 건축사(建築士)에 대한 주관도 형성되었다.

## 화려한 시대를 보내고...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건축사는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법에서 정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특히나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하며, 그 어렵다는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만 한다. 그러한 과정과 사회적 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지켜 보았기에 모든 회원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

본인이 사무국에 발을 들이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건설, 건축경기의 부흥으로 건축사들의 업무가 넘쳐났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이 각광받기도 했고, 한 때는 대학 입시에서 웬만한 의과대보다 건축과의 경쟁률이 더 치열했던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건축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고, 높은 명예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호시절이었다.

그 화려한 빛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가 바로 1997년 IMF였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건설과 건축업계가 줄도산하여 건축사와 그 업종에 종사한 기술자들이 일감과 일자리를 잃었고, 눈물을 흘리며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그 가족들 또한 아픔을 같이 해야 했다. 협회의 사무국도 예외일 수 없어서 조직이 축소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위축되는 회원들의 위상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건축사 업무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IMF 이후 급격히 떨어졌고,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잘못된 정부의 건축사배출정책에 의해 건축사 수가 불과 몇년 만에 2배 이상 팽창하자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시장의 자체적 조절과 정화능력이 떨어져 원가이하의 용역비가 시장가격으로 자리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현재에 와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야기해 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할 후배양성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 시대에 따른 변화의 요구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고 현재는 1조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는 경제강소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문화 수준은 갖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특히 건축문화에 대한 선진화·고급화는 아직은 먼나라 이야기인 듯 싶다. 품질보다는 가격의 경쟁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용역비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축사들과 협회가 합심하여 정부에서 정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건축의 공공성도 건축문화의 창달도 건축사의 위상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건축사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업역을 확보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 뛰어들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허를 획득하여 많은 부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례를 몇몇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과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여 건축사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변화에 대응하고자 무언가를 해보려 노력했다는 그 자세야말로 많은 건축사들이 본 받아야 할 점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변화되지 않아야 할 건축사의 마음가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 건축사 윤리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공공사회 발전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문화 창달과 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위대했던 초심을 잊지않고 변함없이 굳건히 한다면 건축사로서의 위상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건축사는 현장에서 늘 떳떳하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와 사회적 책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계와 감리 등 고유 업무를 행해야 하며, 그로 인해 돌아오는 자부심을 건축사 스스로가 의미 있고 귀중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고귀한 업무와 생각이 보편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노력해주시길 소원한다.

## 32년이란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며...

퇴임을 앞두고,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년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얼마만큼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 본다. 광주건축사회 사무국을 이끌며 우리 건축사님들 모두가 최적의 환경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왔는지 되돌아 보니 아쉬움이 더 많다.

얼마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와 건축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건축사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 본적이 있었다. 그 건축사는 "훌륭한 건축작품을 설계하여 그 작품이 후대에 길이 남아 자신의 건축철학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 건축사의 훌륭한 마음가짐을 상기하며 모든 건축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와 자신만의 건축 철학이 담긴 대표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6. 2. 10 퇴임을 며칠 앞두고...

## 2016 신년맞이 방문/상담신청 이벤트

이벤트기간 : 2월1일(월) - 2월 29일(월)

이벤트대상 : MIDAS 제품 미구매 고객  
신청 방법 : 사이트 방문 또는 담당자 문의

01  
새로워진 MIDAS Space Design Solution

2015 12월 15일 제품 UPDATE !

새로워진 건축설계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건축개요 + 계획도면  
만 있으면 OK!

midas eGen DS

eGen DS 모델  
만 불러오면 OK!

midas Drawing DS

02  
방문/상담 신청 고객 혜택

도입 고객을 위한  
**혜택 1**

파격 추가 할인  
특별 프로모션

상담 고객을 위한  
**혜택 2**

가족카버  
다이어리 & 캘린더

16GB  
USB메모리

이벤트 관련 문의 (주)마이다스아이티

담당자 조슬아미 031 789 1902 csam0602@midasit.com

신청사이트 [www.midasArchi.com/visit](http://www.midasArchi.com/visit)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라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공모하여 공공부분 3작품과 일반부분 5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부분과 건축사진분야에 대한 작품공모도 진행하였다. (대상은 2015년 11월 제 072호에 소개)

### 일반부분 수상작

대상 : 전주 수병원  
 금상 : 주 거 "효자동 박명자씨 단독주택"  
 비주거 "군산 하랑유치원"  
 은상 : 주 거 "올파로스"  
 비주거 "Dynamic Wave 역사적흐름의 전상"

(주)가가 건축사사무소 안용대 건축사  
 예림 건축사사무소 정창석 건축사  
 기단 건축사사무소 김기석 건축사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김현철 건축사  
 (주)이가종합 건축사사무소 윤동신 건축사

## 일반부분 비주거 금상 / 군산 하랑유치원

김기석 건축사 \_ 기단 건축사사무소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29-1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대 지 면 적 : 779.80㎡  
 건 축 면 적 : 436.08㎡  
 연 면 적 : 907.89㎡  
 규 모 :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하랑 유아학교는 군산시와 한국토지공사 수송택지 지구단위 조성계획에 의해 지정된 유치원 전용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이 해당대지 바로 옆에 있어 유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건축주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부공간계획,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린이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군산의 도시전체와 주변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수송택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색채 규제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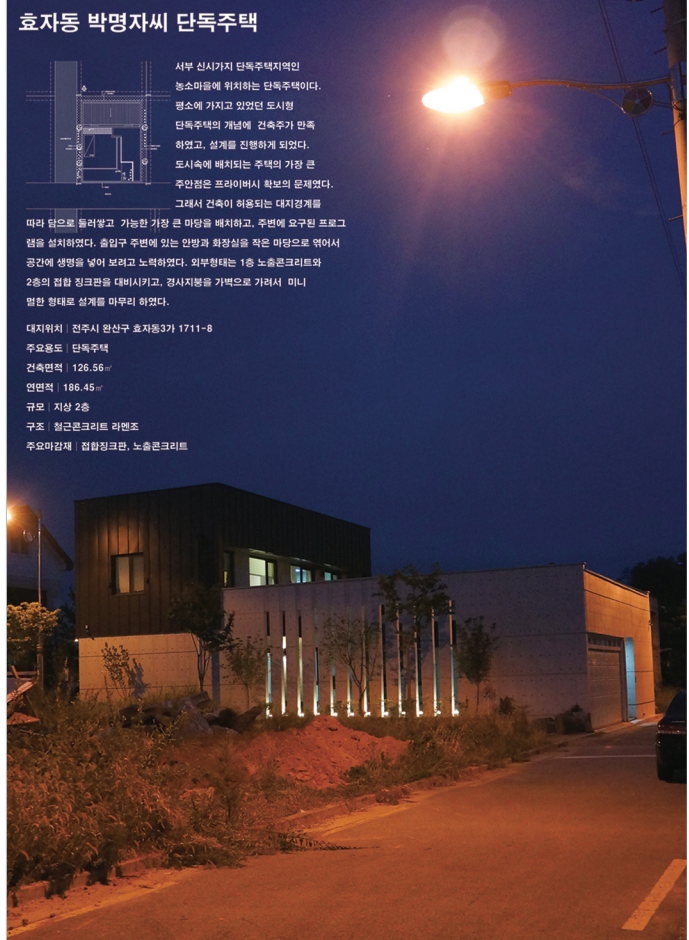


## 일반부분 주거 금상 / 효자동 박명자씨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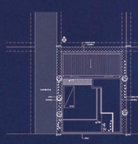
정창석 건축사 \_ 건축사사무소 예림

대 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1-8번지      건 축 면 적 : 126.56㎡      규 모 : 지상 2층      주요마감재 : 접합징크판, 노출콘크리트  
 주 용 도 : 단독주택      연 면 적 : 186.4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서부 신시까지 단독주택지역인 농소마을에 위치하는 단독주택이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형 단독주택의 개념에 건축주가 만족하였고,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도시속에 배치되는 주택의 가장 큰 주 안점은 프라이버시 확보의 문제였다. 그래서 건축이 허용되는 대지경계를 따라 담으로 둘러싸고 가능한 가장 큰 마당을 배치하고, 주변에 요구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안방과 화장실을 작은 마당으로 엮어서 공간에 생명을 넣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외부형태는 1층 노출콘크리트와 2층의 접합징크판을 대비시키고, 경사지붕을 가벽으로 가려서 미니멀한 형태로 설계를 마무리 하였다.



### 효자동 박명자씨 단독주택



서부 신시까지 단독주택지역인 농소마을에 위치하는 단독주택이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형 단독주택의 개념에 건축주가 만족하였고,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도시속에 배치되는 주택의 가장 큰 주안점은 프라이버시 확보의 문제였다. 그래서 건축이 허용되는 대지경계를 따라 담으로 둘러싸고 가능한 가장 큰 마당을 배치하고, 주변에 요구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안방과 화장실을 작은 마당으로 엮어서 공간에 생명을 넣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외부형태는 1층 노출콘크리트와 2층의 접합 징크판을 대비시키고, 경사지붕을 가벽으로 가려서 미니멀한 형태로 설계를 마무리 하였다.

대지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1-8  
 주요용도 | 단독주택  
 건축면적 | 126.56㎡  
 연면적 | 186.45㎡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 | 접합징크판, 노출콘크리트



# 여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여주시는 장애인 체육활성화, 체력증진 향상 및 재활도모에 기여하고, 문화적 복지 취약계층인 육아여성,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 복지향상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여주시 장애인 국민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함.  
 발주처: 전라남도 여주시 / 설계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 심사위원장: 정주성 / 심사위원: 김정규, 정금호, 장춘기, 문경숙, 장재곤, 배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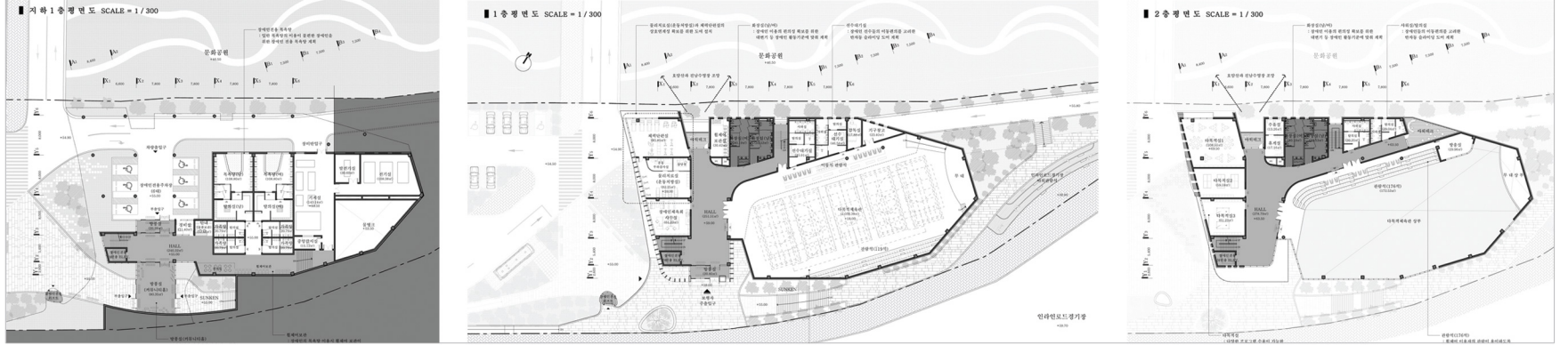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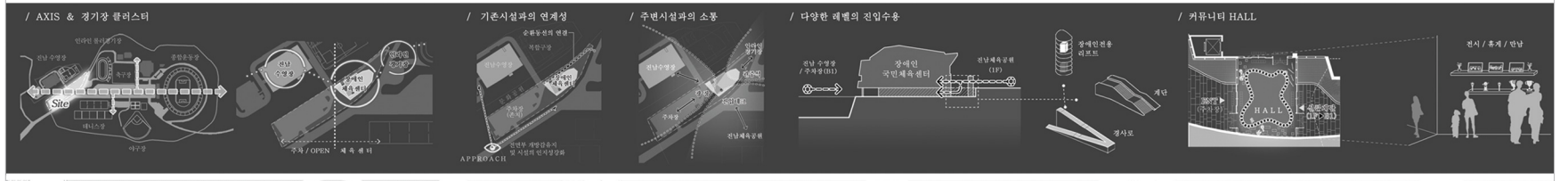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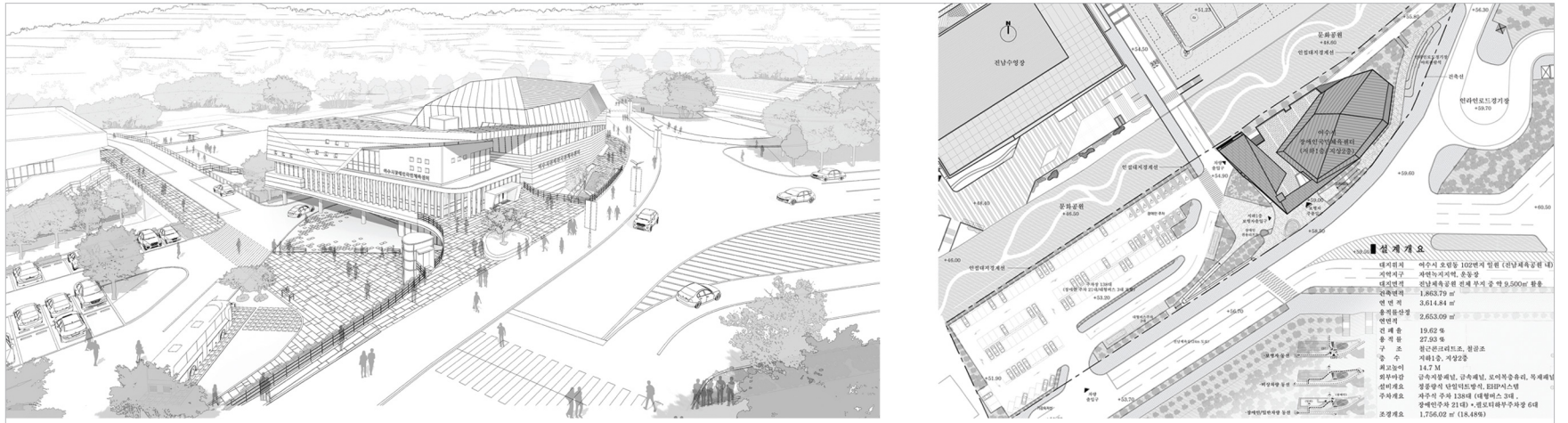
당선작: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건축사사무소 더반  
 입선작: 건축사사무소 사람

임태형 건축사  
 이수용 건축사  
 신영은 건축사

위 치: 전남 여주시 오림동 102번지 일원(진남체육공원내)  
 대지면적: 진남체육공원전체중 약9,500㎡활용  
 건축면적: 1,863.79㎡  
 연 면 적: 3,614.84㎡  
 건 폐 율: 19.62%

용 적 륜: 27.93%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마 감: 금속지붕패널, 금속패널,로이복층유리,목재패널  
 주차대수: 138대(대형버스3대,장애인21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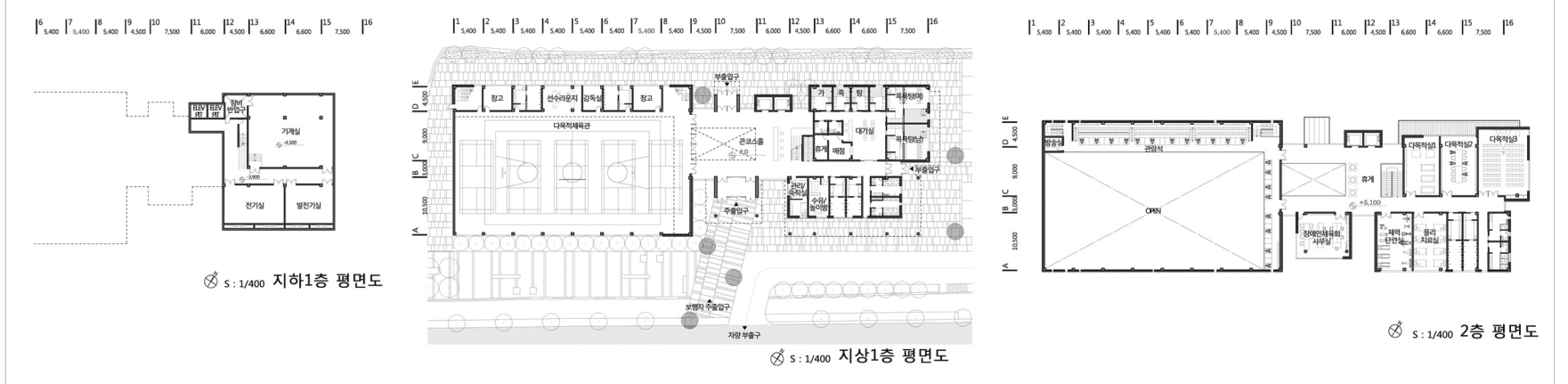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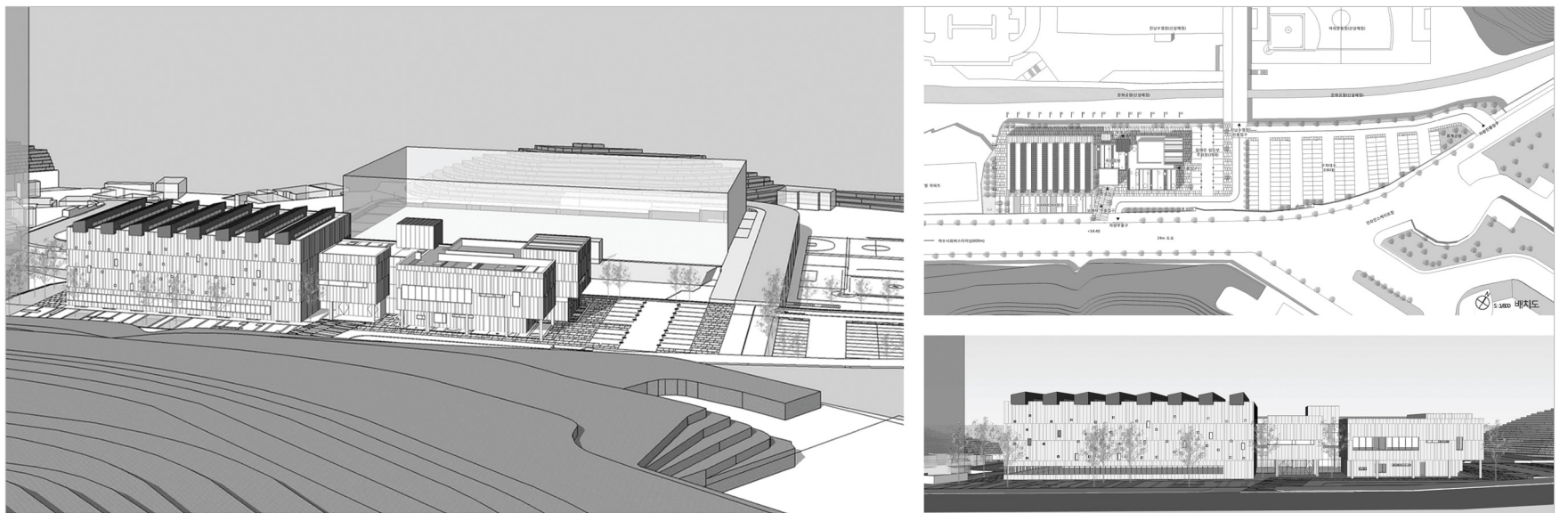
**당선작**  
 임태형 건축사\_(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이수용 건축사\_건축사사무소 더반



위 치: 전남 여주시 오림동 102번지 일원(진남체육공원내)  
 대지면적: 337,837㎡  
 건축면적: 2,155.82㎡  
 연 면 적: 3,592.55㎡  
 건 폐 율: 4.04%

용 적 륜: 7.05%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PT구조시스템  
 마 감: 알루미늄타공패널,내후성강판,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155대(장애인17대,임상부2대 포함)

**입선작**  
 신영은 건축사\_건축사사무소 사람



#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제안공모

전주시는 사계절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행사 및 문화공연 등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일반설계공모방식이 아닌 제안공모방식으로 계획안을 공모함  
 발주처: 전라북도 전주시 / 설계공모방식: 제안공모 / 심사위원: 남해경, 이용수, 문창호, 유희중, 최승희, 강대호, 김일중, 장순익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우수작: (주)올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미기재)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외 7필지  
 대지면적: 11,779㎡  
 연 면 적: 2,744㎡내외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체력측정실, 의무실 등  
 \*제안공모이므로 정확한 설계개요는 없음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 \_ (주)길 건축사사무소



- #1 맞이마당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방문자 동선을 고려한 출입구 및 광장을 조성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개방성을 극대화시켜 열린공간으로 계획한다.
- #2 평화의 루(옥외데크)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사이에 외부데크를 계획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해 주고, 동시에 주변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 #3 다목적 구장(주민행사마당)  
실내 체육관 앞에 다목적 구장을 배치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하고, 10m 주 도로에서 이격시켜 소음차단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 #4 힐링포레스트 & 생태공원  
대지 주변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편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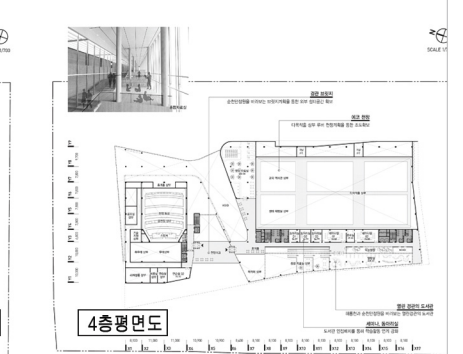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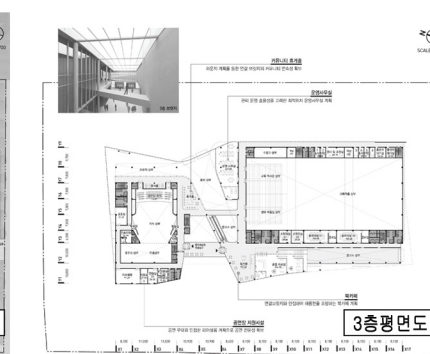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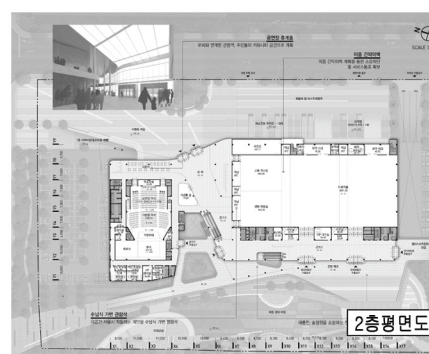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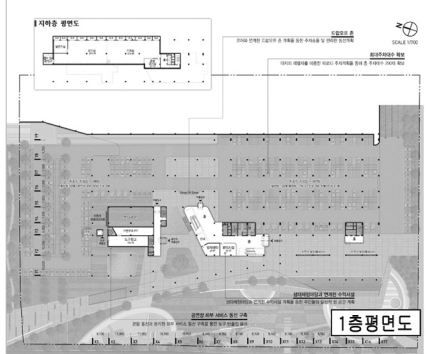
#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상 공모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전국 학생과 교직원 및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체험학습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설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함  
 발주처: 전라남도교육청 / 설계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 심사위원: 김정규, 오세규, 최승희, 이성수, 고성석, 조준익, 강석원, 김기정, 김판수

당선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최재영 건축사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우수작: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영돈 건축사(미기재)



**당선작**  
 양병범, 최재영 건축사 \_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_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비점오염원 관리방향 설정 3부

I.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개요 \_ 2015. 9. 10(70호) 게재  
 II. 저영향개발 기법(LID)의 도입 \_ 2016. 1. 10(74호) 게재

- 이 정 기 내 처 장 (현 광주전남주거복지사업단장) / 전남대·동대학원(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석사)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수료

## III. 비점오염 관리제도 및 정책적 동향

### 1. 비점오염 관리제도

#### 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의 개발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관광단지의 개발
· 에너지 개발	· 산지의 개발
· 항만의 건설	· 특정지역의 개발
· 도로의 건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수자원의 개발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 철도의 건설	·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공항의 건설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제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괄호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번호임)

· 제철시설	· 제1차 금속산업(24)
· 섬유염색시설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0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금속 광업(06)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07)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19)	· 음·식료품 제조업(10, 11)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3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도매업 및 상품 증개업(4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37, 38, 39)

4. 법 제33조제2항 및 제-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4.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6.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정책적 동향

#### 가. 박근혜 정부 14대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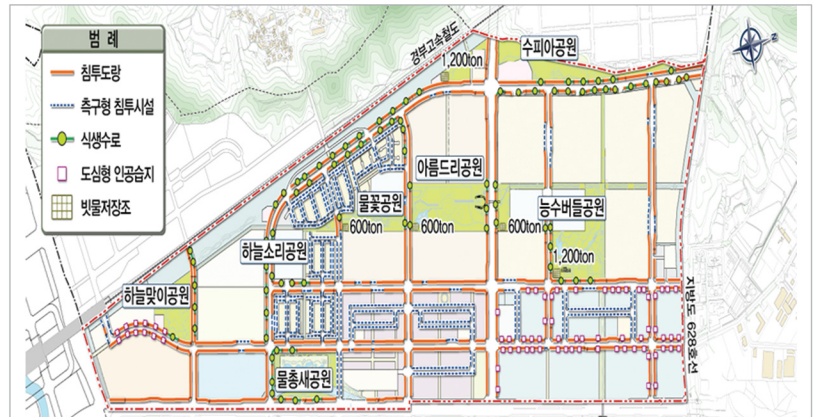
현정부의 99번 국정과제(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로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과 함께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향후 LID기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나. 관련부처의 동향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시 LID기법을 적극 반영하고있으며,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및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LID기법을 적용토록 개정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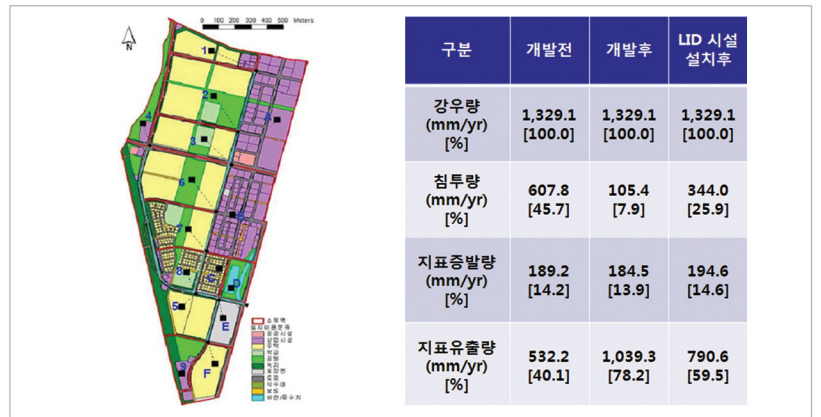
## IV. LID 기법의 적용사례 및 기대효과

### 시범도시의 개요



▲ <그림> LID 기법을 적용한 아산탕정 신도시

### 우수유출 저감효과



▲ <표> LID 기법을 적용한 아산탕정 신도시

아산탕정 신도시개발 시 LID 기법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유출수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의미있는 수치의 개선효과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0%에 육박하는 지표유출량을 저감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LID 기법이 비점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좀더 많은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례연구가 발전적으로 향후 LID 기법 적용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작은 결과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V. 향후 비점오염 관리방향 제시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보전하고 복원함으로써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성 저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수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저영향개발 기법(LI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비점오염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으로 몇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시 강우유출모델 등을 통하여 LID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 2) 이의 유지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시 LID기법에 대한 조사항목과 조사시기를 포함한다.
- 3) LID기법은 개발지역내 빗물이 자연유하되는 경로 중 가급적 하류지역에 배치하여 환경성 보존효과를 극대화한다.
- 4) 식생은 다년생 식물로서 침수 및 염분에 내성이 양호한 종류를 선택한다.
- 5)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면과 투수면인 녹지를 연계하여 강우유출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우수처리계통을 수립한다.
- 6) 우수의 지하침투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보도, 자전거도로 등 지지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종류의 불투수층은 투수화한다.
- 7) LID기법의 각종 요소들을 선형으로 연계처리되도록 계획하고, 각 요소들을 수계를 잘 계획하여 가급적 대형화함으로써 침투효과의 극대화 뿐 만아니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
- 8) 새로운 LID기법 기술요소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이에따른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안이 그 동기를 부여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다시 한 번 3회에 거쳐 비점오염원 관리방향설정에 대해 연재해주신 이정기 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건축에 대한 열정, 작품에 관한 기억, 우정이 빛나는 공간, “건축공간 이음”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와의 만남

전주의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는 현재 전북지역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작품 활동과 함께 지역 건축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미래 전북지역 건축계를 이끌어 갈 신진건축사(만 45세 이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2015년 11월)에는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에서 공공부문 대상(순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까지 수상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는데... 지난 1월 26일 편집위원들이 그의 사무실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저와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더군요. 저는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전주로 유학와 지금까지 전주에 터전을 마련하여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희망은 역사선생이 되는 것이었는데 운명이었는지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건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재학중인데 한국건축사(史) 쪽으로 논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990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사실 그해 10월까지도 역사교육과로 전과를 고민했어요. 우연히 친구 따라 학교 건축동아리 '라인건축연구회'에 놀러 갔다가 좋은 선배를 만났지요. 오인택 건축사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과의 만남 이후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어설프지만 열정 하나만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출판작 만든답시고 동아리방에서 널빤지 깔고 자고 먹고, 거의 쥐랑 같이 생활했죠.

졸업후 건축사보 생활은 건우설계 주영민 건축사님과 했어요. 건축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의 '건축공간 이음'이 탄생된거구요. 그 후 건축사자격 취득하고, 2004년 개업하여 올해까지 만 12년째입니다.

##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전 건축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학부 때에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군요.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만을 쫓아 내 의지 보다는 건축주 의견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했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축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전번 건축사지중 예세이로 실린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최상철 건축사 지문(地文)이 생각나는군요.

최건축사님은 20대 후반 정도에도 본인만의 공간구성에 특색이 있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화장실만 봐도 본인이 설계한 작품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좋은 글을 쓰시고 그럴 겁니다. 부럽더군요. 그동안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건축설계에 임했다고 생각했지만 카피였을 뿐, 넘어서지 못한 우울 안 개구리였다는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만의 지문(地文)이 담긴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야죠. 단순한 가운데 선 하나가 건물의 생명력을 주는 건축물 설계가 저의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얼마전 저의 아들, 딸과 삶의 철학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나와 다른 이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자. 내 아이들에게 원했던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나 스스로의 실천과제로 삼아 앞으로 남은 삶의 철학으로 담을 것입니다.'

##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있었다면?

개인사정으로 5년정도 고향인 진안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사무실도 진안으로 이전했지요. 그 5년 동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략 1년에 5건 정도 무료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재능기부죠. 주로 자원봉사센터, 마을 등에서 부탁해서 했던 건데. 고향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랬기에 어려운 마음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네요. 반면 제 스스로 찾아서 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저의 직장 생활의 전 기간동안 실무수련 스승인 주영민 건축사님입니다. 이 분을 1996년에 만나 지금까지 20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작든, 크든 간에 맡은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최선을 다해 설계를 합니다. 게으름이랑게 없죠. 제가 건축주라도 이 분에게 설계를 맡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건축공간 이음'도 그분의 열정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포용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흔치않은 일이지만 '건축공간 이음'은 같은 사무실에서 동고동락하던 건축사님과 그 직원들이 성장하여 함께 사육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건우설계 주영민, 그때 직원이었던 다다건축 최태규,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의 선배배가 함께 이어진 역사의 부산물인거죠.

두 번째로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이셨던 아림 건축의 이성엽 건축사님입니다. 이 분은 전북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협회와 회원들에게 희생하는 사람, 그 자체더군요. 사심없는 순수한 그 희생정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림 건축의 정창석 건축사님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작품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정직한 건축'.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화려함만 따라하기 급급했던 시절, 이 분의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살없는 정직한 설계'로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죠.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 공학관 등이 그렇습니다. 사실 공모에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현장에 반영할라 하면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건축사가 바로 이 분이 아닐까 합니다.

##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개업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나가야(3.6mx14.4m)의 모방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대지의 환경이 비슷했거든요. 엄청 흥분했어요. 퇴근도 않고 폭 빠졌지요. 3년반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노출 콘크리트도, 내부 중정도 반영되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 착각한거죠. 그 후로 건축주를 검증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그릇을 가늠하며 조금은 천천히 행동합니다.

##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본업 외 많은 활동은 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재능을 기부하는 정도입니다. 몇년 전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해피홈사업(사랑의 집 저주기에 설계 지원을 해줬고, 최근엔 35사단 6.25침전 용사 집지 어주기 설계 등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선배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春來不加漸(춘래불가침)寒支不渝色(한지불투색) [봄이와도 더 푸르지 아니하고, 혹한 추위에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변함없이 의연한 모습 보여주는 선배님들 소나무 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즈니스에만 치중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후배님들 에겐 대학원을 권하고 싶군요. 새로이 건축이론을 접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일이 많고, 적응에 요동치지 않고 평온합니다.

## 향후 계획 및 포부

개인 사정으로 5년여 정도 떨어져 있다가 가족과 함께 다시 산지가 3년 정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22코스에 도전하는 것이 2016년 계획입니다.

건축사의 길로는 신진건축사 연령의 마지막 해인 만큼 혼돈의 시기를 벗어나 내년부터는 저만의 지문(地文)을 남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바우건축을 같이 만들어준 친구 최명희가 이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박주현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전주 /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



▲ 지난 1월 26일 본지 편집위원들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박광성 건축사 사무실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 "건축공간 이음"(완산구 전동5길 5-4)은 건우설계 주영민 건축사와 다다건축 최태규 건축사, 그리고 박광성 건축사 3인이 함께 설립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그룹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박광성 건축사 작품

진안고원주택



김제등기소



세동보건진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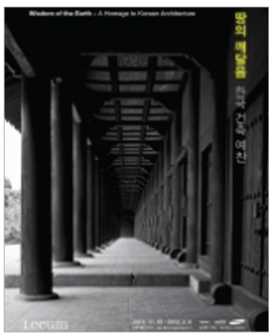
익산등기소



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

<학생기고>

- 한국건축예찬 - 땅의 깨달음



서울의 삼성리움미술관에서 건축사진전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사찰, 궁궐, 한옥 등의 사진과 함께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접목시켜 전시하는 구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전시는 총 3개의 테마로 나누어 있다. 1부는 한국의 종교건축으로 불교 건축의 대표적인 불국사, 해인사, 선암사 등을 볼 수 있었고, 3D영상을 통해 석굴암의 복원도 감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유교 건축을 상징하는 종묘도 함께 볼 수 있었다. 2부에서는 경

복궁, 창덕궁, 수원화성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과 성곽의 건축물을 사진과 함께 동영상으로도 관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민가건축, 즉 한옥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각의 전시장은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고,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들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한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동영상도 준비되어 흥미로웠다.

그런 깨달음지 전시장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으로 붐볐다. 그리고 그들은 각 기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었다.

사진과 미술전시회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번 전시회는 작품들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각각의 전시장마다 그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들리도록 배려되었다. 그래서 사진으로도 마치 그 장소에 있는 듯 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나에게 이번 전시회는 한국건축에 대한 또다른 매력을 알게 해준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동화 학생 \_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015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일곱번째 프로젝트로 양동의 차오름주간보호센터 건물 리모델링

최근 '(사)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일곱번째 프로젝트로 양동의 '차오름주간보호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의 '인본이 흐르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여대학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학생들이며, 후원은 실로암 사람들, (주)은성강건, 서로 건축사사무소,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등이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우리 주변의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불편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편견 등을 없애 결국 심리적인 장애까지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2008년을 시점으로 쌍촌종합사회복지관과 남구 실로암센터를 리모델링 했고, 조대치과 병원 앞 유니버설 버스정류장 및 막달레나의 집을 신축,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시각장애인선교회 건물, 우정경로당을 리모델링 했다.

이에 2015년 장애없는 세상만들기팀은 지하층과 지상층과의 내부계단이 없어서 도로로 나가서 지하층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환경 때문에, 이용상에서 안전성 미확보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오름주간보호센터를 선정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내부계단 설치, 지하 1층 쾌적성 확보, 지상 1층 사무실 및 식당, 주방 공간 배치, 옥상에 공연장 및 텃밭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우리의 주변환경에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사용되지 못하거나 생활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찾아내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회봉사활동이다. 장애 없는 세상은 경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함께 나누는 인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의 주체는 건축사, 교수, 학생, 건설사와 같은 건축전문인 뿐만 아니라 행정, 시민단체, 시민들을 아우르는 우리 모두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장애가 없도록 모두의 소중한 뜻을 모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부계단 1



내부계단 2



옥상 공연장 및 텃밭



차오름주간보호센터 외관

사랑에서\_열다섯

건축사(建築士)와 건축가(建築家)

신년 벽두에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사실상 분리되는 것이다. 이로써 해묵은 숙제가 마침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더불어 또 다른 과제를 안았다는 부담감도 들었지만, 새로운 과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됐다.

안타까운 것은, 그 논란의 과정에서 아주 오래되고 매우 심각한 해묵은 숙제가 또다시 불거졌다는 점이다. 바로 건축사와 건축가의 애매모호한 구분과 그로인한 갈등이다. 가장 많은 건축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주장하며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반면에 한국건축가협회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우려하는 입장이고, 일각에서는 건축가라는 명칭을 내세우며 집단적으로 반대외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각의 주장과 그 배경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건축계 내부의 갈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가는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훨씬 더 많다.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좁게는 건축분야의 계획과 디자인 및 설계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축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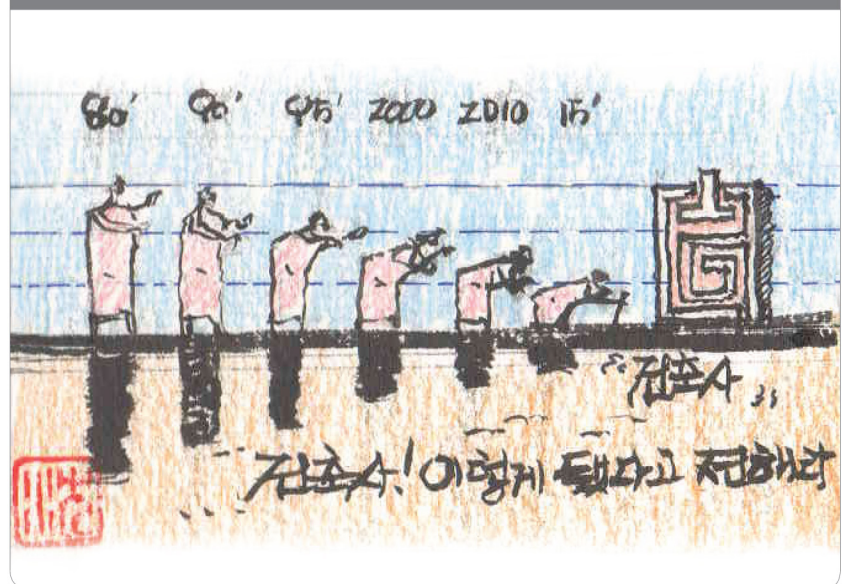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같은 점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건축법과 건축사법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에, 건축가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로 행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률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법률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는 법률가에 포함되지만, 모든 법률가를 변호사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의뢰와 세무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또는 제도적장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는 사뭇 다르게, 건축계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구분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많고 깊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차별의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1963년에 제정된 건축사법에 의해 태동한 건축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으며, 교육과정과 수련과정 및 자질까지도 언급될 수도 있다. 정말이지 쉽게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이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반복과 갈등만 지속할 것인가? 건축사와 건축가 모두가 깊게 생각하고 반성해 볼 일이다.

(편집인\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무법인서석 |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단축되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바뀌어

-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 실무교육이수시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지난 2015년 10월 19일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이 단축되고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바뀌게 된다.  
 먼저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으로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필요한 이수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이에 따른 이수시간 완화로 건축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원에 등록 후 5년 안에 갱신에 필요한 시간이 윤리교육은 변경 없이 5시간을 이수토록 했으며, 전문교육은 40시간 이상에서 25시간 이상, 자기계발은 15시간 이하에서 10시간 이하로 변경됐다.  
 개인별 실무교육 이수시간은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 3(건축사보 자격기준)이 추가되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감리 시장 개방으로 인한 조치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건축업계의 인력수급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발표... 불합리한 심의 개선 기대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불합리한 심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1월 15일 발표했다.  
 건축심의 모니터링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과 무관한 구조 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한 경우도 있었다.  
 또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참관 여부를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으며, 일부 시·도는 광역 통합 심의 기준을 아직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과 인천, 성남, 용인, 전주에서는 교통 등 타 분야와의 통합 심의를 운영해 개별 법령에 따른 상호 충돌을 예방하는가 하면,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 시스템화, 전남과 청주는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 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6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 시험 공고되어

-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시험일은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 시험을 오는 5월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건축법규 등 4개 과목이고 건축사 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2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하면 되고 반드시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 수수료는 3만 5천원이고 세부 시험시행 일정과 시험장소 등은 추후 공고되며, 합격예정자 발표는 오는 6월 10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게시 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공지사항 173949번을 참고하면 된다.

###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 감정가 최고 80%로 아파트와 일반 부동산 최저 3%와 3.3%로 대출 특판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음과 같이 특판 개시한다고 밝히며 많은 건축사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신협 특판개시  
**부동산 담보대출** 든든한 금융파트너 광주건축사신협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최고 80%(사업자금 80%, 개인 70%)**

아파트	구분	일반부동산
최저 3.00%	금리(6개월변동)	최저 3.30%
면제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면제	수입인지	면제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평면도

※ 특수물건, 제한물건, 내대지 제외 ※ 2016년 4월 30일까지 한정판매  
 상담 김정석 부장, 김은숙 과장, 김효중 주임 ☎ 062 527 8890~1

###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감사선거에 호남권 건축사 출마

- 광주 심상봉 건축사(주)에이디그룹 건축)와 전남 김강수 건축사(주)연우 건축)

####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16. 2.26)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감사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기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 음			
기 호	성 명	사 진	사무소 명 (소속)
1	심 상 봉 沈 相 鳳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광주)
2	김 강 수 金 康 洙		(주)건축사사무소 연우 (전남)

2016. 2. 1.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 감사선거에 호남권 두 명의 건축사가 출마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했다.  
 전국 시·도 건축사회 총 520여명의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이번 선거가 호남권 후보로만 진행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대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광주건축사회, 회관 1층 사무실 임대 접수 실시해

- 건축사 그룹화 진행관련 신청자 우대(3인), 오는 2월 12일까지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현재 회관 1층 내에 비어 있는 사무실을 임대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조건은 임대면적이 55평(공용포함)이고, 임대보증금은 오천오백만원, 월임대료는 165,000원(부가세 포함), 월관리비는 192,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신청기한은 2월 12일이며 기한내에 접수 사항이 없거나 선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 접수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 우대 조건으로는 3인 이상 건축사 그룹화 사항 신청자에 대해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신협 김정석 부장(062-527-8890)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문

###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모집인원 : 광주지역 2인, 전남지역 2인, 전북지역 2인  
 모집기간 : 2016. 2. 11 (목) ~ 3. 31 (목) 오후 6시까지  
 지원자격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활동혜택 : 기자증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력서 메일전송(gjkira@empas.com)  
 문 의 : Tel.062-521-0025~6 / Fax.062-528-0026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 열어**

- 지난 2월 2일 개최... 협회 업무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법에 대한 설명가져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2월 2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금상장 아리랑 하우스에서 2016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미가입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단 및 신입회원, 광주지역 활동건축사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회 업무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에 이어 조휴환 부회장수전 건축사사무소)이 건축사협회 업무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선영 부이사장(일우 건축사사무소)이 광주건축사신협과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정명철 회장은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건축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건축사는 단순히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건축사는 한 시대의 문화를 짓고 이끌어가는 시대의 선도자이다"고 밝히고 "앞으로 후배건축사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위해 우리 선배건축사들과 협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신입건축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초보건축사로서 협회 회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입건축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많은 노력 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전회원 대상으로 건축설계용역발주시 분리발주하지 않는 사례접수 받아**

- 32개 지자체 및 교육청 우정청 등에 지속적인 건의, 상시 모니터링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22일 회원 알림을 통해 건축설계용역발주시 분리발주하지 않는 사례를 접수 받고 공문을 통해 관계 기관에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에 건축설계용역 발주 및 입찰제도와 관련 전기, 통신, 소방은 관계법령에 근거해 각 분야별로 분리발주하여 입찰 공고할 것을 32개 지자체 및 교육청, 우정청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몇몇 기관들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에게 관련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시회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몇몇 사례가 접수되어 관계 기관에 공문을 통해 이행조치 해 줄 것을 요청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설계용역발주시 법령에 근거한 각 분야별 분리발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다"고 밝히며 참여를 당부했다.

**광주건축사회, 2016년 정기총회 표창패 수상자 결정**

- 지난 1월 18일 개최된 제회 이사회의에서... 공무원 9인, 건축사 8인, 직원 1인 선정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18일 제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8일 신양파크호텔 1층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정기총회 표창패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표창패 수상자는 총 18인으로 감사패 9인, 공로패 9인이며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퇴임임원, 퇴임직원으로 골로루 수상자가 결정됐다.

다음은 이번 표창패 수상자 명단이다.

※감사패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실무관	이현정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주무관	신규철	
동구청 건축과 과장	조현기	
서구청 건축과 실무관	정유진	
남구청 복지기획과 주무관	이태기	
남구청 건축과 주무관	서준성	
북구 도시개발과 과장	김형철	
광산구청 건축허가과 과장	신종형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과장	정인주	

※공로패

사무소명	성명	임직원 직책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부회장
수전 건축사사무소	조휴환	
건축사사무소 가림	마재완	이사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정재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강형선	
건축사사무소 유림	박신남	
한샘 건축사사무소	최경양	감사
동원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 검사 수수료 이용료 변경**

- 오는 2월 15일부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전년 대비 6.1% 인상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건설 관련 품질시험·검사 151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1% 인상하여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내 일원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민·관공사(5억 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는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151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상기 사항은 사업주, 건축주가 사전 전화 및 팩스로 요청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Tel. 062-613-6787/Fax. 062-613-6789)로 문의하기 바란다.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2015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 가져**

- 지난 1월 15일 광양시 골약동에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사업비 지원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김래수/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는 지난 1월 15일 광양지역 회원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골약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남 광역시 골약동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보일러가 없어 나무를 때며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광양지역 건축사회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김래수 광양지역건축사회장은 "우리 건축사회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집 고치기에 협조해주신 광양지역자활센터와 광양시 OK생활기동대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지역건축사회, 군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 받아**

- 2015 어린이 창의 건축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에 기여공로



전북 군산지역건축사회(회장 김성수/주미래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2월 말 군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 사유는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군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행복지원사업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군산지역건축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경 총 2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어린이 창의 건축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건축사회원 10여명이 어린이들의 건축체험을 위한 강사와 멘토로 직접 나섰다.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감사선거 후보로 박진호 건축사 출마**

- 오는 3월 8일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에 따라 신임여부로 결정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감사선거에 건축사사무소 이감 박진호 건축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8일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정기총회에 임원 개선의안 심의시 신임여부로 결정된다.

박진호 건축사는 1971년 생으로 2006년 입회했고 송의고등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광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건축사회 건축물지도점검위원과 건축법제위원, 광주건축사신문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했다.

**2016년도 전국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2016년 2월 초 기준)**

일시	시도건축사회	장소
3.08(화)	10:00	광주건축사회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
	13:30	전남건축사회 미 정
3.09(수)	10:00	전북건축사회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
3.10(목)	14:00	세종건축사회 정부세종센터 연회회장
3.15(화)	10:00	충북건축사회 미 정
	미 정	대전건축사회 미 정
3.17(목)	10:00	경남건축사회 미 정
	미 정	경북건축사회 경주 현대호텔
3.18(금)	미 정	울산건축사회 MBC컨벤션센터 아모레홀
3.21(월)	16:00	서울건축사회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3.22(화)	14:00	인천건축사회 송도컨벤시아 (예정)
	15:00	경기건축사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23(수)	10:30 예정	강원건축사회 미 정
	미 정	대구건축사회 미 정
3.24(목)	10:00	충남건축사회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10:30	부산건축사회 부산 동심호텔 대청홀
3.25(금)	15:00	제주건축사회 제주KAL호텔 2층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건파라치 생긴다**

- 건축 관련 공익침해행위 대해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 가능해져

지난 1월 25일부터 건축법 등 건축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해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건축법' 등 100개 법률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서 100개 법률 중 국토부 소관 12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국토부 소관 12개 법률 중 건축 관련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이 주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침해행위자, 침해행위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와 증거만 첨부하면 되므로 절차도 어렵지 않고 특히 전문가인 건축사는 불법건축물 적발 및 신고 행위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2월·3월 주요 일정 안내

법/령/정/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15	16	17 광주건축사회 제2회 이사회의 -오전 10시 회관 사회회의실	18 광주건축사회 자문위원회의 -오전 10시 30분 금수창	19	20
21	22	23	24 광주건축사회 대의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회관 사회회의실	25	26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오전 10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27
28	29	1 3.1절	2	3	4	5
6	7	8 광주건축사회 제28회 정기총회 -오전 10시 신암파크호텔 1층 전남건축사회 제50회 정기총회 -오후 1시 30분 장소 미정	9 전북건축사회 제50회 정기총회 -오전 10시 오벨리스 5층	10	11	12

□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김진우 건축사 / 김진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우치로 114-0
- \*변경(소재지)**
  - 김승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룰  
광주 동구 금남로 238 8층 (남동)
  - 조두상 건축사 / (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길 43 송학빌딩 3층
- \*폐업**
  - 박득수 건축사 / 삼원 건축사사무소
- \*부고**
  - 광형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  
부친상 01월 18일 (월)
  - 김영전 건축사 / 아톰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01월 29일 (금)

□ 전남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상호 및 형태변동)**
  - 최기성 건축사 / (주)JSG PARTNERS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306, 3층 305호
- \*변경(소재지)**
  - 김동찬 건축사 / 타워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3, 1층
  - 박종혁 건축사 / 바로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중마로 544, 2층
  - 정원석 건축사 / 아름건축사사무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49
- \*전입**
  - 김갑동 건축사 / 마인앤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예방로 3814, 3층(이창동)
- \*결혼**
  - 장세윤 건축사 / 이레 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01월 17일 (일)
  - 최희주 건축사 / 청목 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01월 30일 (토)

□ 전북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조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JCN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5(서노송동)
  - 권혁성 건축사 / 착한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6길 7(중화산동2가)
  - 송숙희 건축사 / 백송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7(효자동3가)
  - 박해진 건축사 / ON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월2길 36, 3층(중화산동2가)
  - 유희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 4길 10-25(인후동 2가)
- \*변경(소재지)**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탑빌딩 503호(갈산리)
- \*결혼**
  - 배성지 건축사 / 기단 건축사사무소  
자녀 결혼 - 01월 30일 (토)
- \*부고**
  - 박해성 건축사 / 해성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02월 02일 (화)

□ 광주·전남·전북 2·3월 지역축제 안내

- ▶ 01. 01 (금) ~ 02. 14 (일) 지리산 남면 배래봉 눈꽃축제 2016 \_ 전북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배래봉 일대
- ▶ 03. 18 (금) ~ 03. 27 (일) 광양매화축제 2016 \_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및 시 전역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6.01.19 시행)

-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에 대한 도로기준을 완화하고,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제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나. 기존 공장 진입을 위한 도로 기준의 한시적 완화(제6조의2제3항 신설)  
「대지에 접하는 도시지역의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그 너비는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은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어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존 공장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려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더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제15조제5항제14호 및 제15조제5항제15호 신설)  
관광특구에서만 허용하던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촬영실 용도로 쓰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추가함.
- 라.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아동 관련 시설과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 완화(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영업허가 등의 제한 요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와 농업용 등의 참고 규모를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 바.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및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 신설)  
1)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 상부를 폭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차양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분뇨의 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되는 특례적용 대상인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적용되는 부분의 면적산정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 타목 신설)  
현존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적용되는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자. 건축물 옥상 출입용 승강장 설치 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2016.01.27 시행)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되,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을 제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상연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종근  
 편집인 서재형  
 부편집인 정명환, 백재봉, 양우현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박종호, 박주현, 이종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인명 (주)디자인포우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대만의 참사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건축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 단 광고: 350,000원
- 하 단 1/2 광고: 200,000원
- 구 독 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이현조 건축사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주)현진이앤씨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하늘에 도전하다.  
(항공대 교수가 들려주는 항공우주과학의 모든 것)  
-저자 장조원, 출판 중앙북스

문승현 학생  
전남대학교 재학



'하늘에 도전하다' 라는 책은 우리가 한번쯤은 경험해봤고 타봤을 법한 항공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가 어떻게 뜨고 내리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 100년 동안 항공우주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인공위성을 통해 우리가 통신하고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이것은 항공우주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서도 골프채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GPS의 원리, ABS브레이크 등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항공기의 기술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잘 살펴보면 날개 끝에 작은 날개가 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 작은 날개로 인해 더 짧은 날개로 많은 중량의 항공기를 들어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에어쇼에서 보면 항공기들이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어떤 좌석이 가장 좋은 좌석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자리를 찾아야만 그 기종에 가장 좋은 자리를 앉는 것인지 알려 주고 있으니 앞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매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진행과정과 미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로켓을 쏘아올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발사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주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시원한 해결 답안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항공기를 본다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느낄 것이고, 우주에게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먼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다는 것을.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가려움

등어리가 가려울 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운다

남이 긁어 주는 등짝이  
얼마나 시원 하랴만  
그래도  
내 짧은 손보다 낫고

늪어지면 몸이 굳어  
그나마 손닿는 곳이  
떨어질까하는 걱정으로  
매일 손 늘리는 연습을 하고 산다

늪어지면  
서로 등이나 긁어주며  
그렇게 살자고  
아내에게 되뇌이며  
오늘도  
하루가 간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 광고: 200,000원
- 구독료: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신협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 ▶ 공장 직영: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 ▶ 공장 직거래
- ▶ 주택 개·보수: 한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 ▶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 ▶ APT, 주택 리모델링
- ▶ 배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반



\* 유사 상호 주의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성동 530번지

☎ 062)373-6548, 6549  
374-6585